

# MUJINE

*Heritage*

10

OCTOBER 2014

*ON THE  
RED CARPET*

RETURN OF LIPSTICK

**UNVEIL THE CITY**

NINE BEAUTY  
ESSENTIALS

77개의 물건과 나

**TOD'S**  
MADE IN ITALY

— 편집장 이태영

## 지금 이 순간

“2014년 10월, <뮤인>이 일곱 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7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봐주신 독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순간’이란 고마운 시간입니다. 그런 뜻에서, <뮤인>이라는 타임캡슐 안에 77인의 명사들이 보내온 가장 소중한 물건과 이야기를 모아 담았습니다. 먼 훗날에도 꺼내보고 싶은 ‘나의 오늘’이 녹아 있는 일흔일곱 개의 물건을 통해 여러분의 오늘도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간직하고 싶은 단 하나의 물건은 무엇인가요?” 77인 명사들의 소중한 물건과 이야기를 담기로 한 ‘77개의 물건과 나’라는 칼럼의 도입 부분입니다. 에디터의 글처럼 이렇게 시작한 기획은 수많은 물건 가운데 단 하나만 소개해야 한다는 어려움으로 곤란함을 드리긴 했지만, 편집부로 속속 도착한 얘기들은 하나같이 모두 소중한고 다른 이들과도 나누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믿을 수 없이 빠르고, 그렇게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급히 지나가는 가운데, 뭔가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라는 생각.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과 뭔가 공감하고 있다는 느낌이 ‘힐링’의 기분까지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뮤인> 창간 7주년 기념호를 맞아 인터뷰이로 초대된 7팀은 2014년 한 해를 기쁘게 하고 위로해준 이들입니다. 에디터의 표현에 따르면 ‘아무

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찾지 않고 나의 일을 온 맘과 정성을 다해 행하는 이들.’ 건축가 조성룡 선생과 수류산방팀, 허영만 화백을 비롯한 3명의 젠틀맨, 한결같은 열정이 마를 줄 모르는 최정화 작가, 요즘 핫 이슈인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의 손미나 편집인과 김도훈 편집장,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의 뜨거운 배우 박해미와 김영호, 힙합계의 특별한 존재 빈지노, 누구보다 치열한 월드컵을 보낸 조우종 아나운서. 만나면 행복해지고 행복해지면 다시 지금의 나를 돌아보게 하는 사람들. 그들이 있어 앞으로 더 기쁘고, 즐겁고도 뜨겁게 <뮤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7곳의 도시를 기억하며 그들만의 시선이 담긴 사진을 보여준 포토그래퍼들을 초대했

습니다. “7명의 젊은 포토그래퍼들이 7개의 형형한 눈빛으로 파고든, 7가지 도시의 속살은 어떤 모습일까. 그들이 사랑한 피사체, 사진 그리고 도시에 관하여.” 뉴욕과 베를린, 바라나시, 이스탄불, 파리, 도쿄, 크라이스트처치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보여준 세상은 때론 기쁘고 슬펐으며, 때론 외롭고 따뜻했습니다.

이제 <뮤인>을 펼치실 차례. 그 어느 때보다 공들인 위치북과 멋진 패션 화보, ‘9 Essentials’로 집약된 뷰티 아이템 열전, 이 가을에 꼭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립스틱의 향연도 준비했습니다.

<뮤인>을 위해 애쓰는 분 모두와 소중한 조력자인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8주년 기념호를 기대하게 하는 매거진, <뮤인>은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㉓

Jae-eun Choi, <Paper poem>, 2014, Aged paper, found objet, Installation view

